

특별기획

익산시·고용노동부
재취업·실업급여 현장설명회

익산시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동우회인켄(주) 팔봉공장에 파견된 (주)영양산업개발 근로자 200여명이 9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에 대비해 재취업, 실업급여 관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2일 유관기관 대책회의 이후 익산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 동우회인켄, 영양산업개발이 추후대처방안 및 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이달 21일, 23일, 27일 3회에 걸쳐 동우회인켄 팔봉공장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재취업, 전직지원서비스 및 실업급여제도 등을 설명하고, 추후 개인별 의사에 따라 취업알선, 실업급여,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고용노동지청, 고용질서 점검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2개월간이며, 점검대상은 청소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커피전문점 등이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2014년 8월부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업주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에게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을 펼친다.

다만,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돼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점검대상 중 일부 사업장은 사전 계도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의료원,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 구축·운영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이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열환자 선별 감시시스템 및 음압격리실 1실과 일반격리실 2실을 갖춘 감염병 안심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감염병환자(의심환자) 및 응급환자가 병동에 입원하기 전까지 응급 의료센터 내에서 격리되어 진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

또한 발열감지 등 사전 감시장치와 음압, 일반 격리병상을 확보함으로써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때 확진환자 1명과 의심환자 1명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앞장선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 가을축제 '황룡제' 개최

군산대학교가 21일 거리퍼레이드를 출발로 대학가축제를인 황룡제를 시작했다.

이번 황룡제는 21일부터 23일까지 군산대학교 캠퍼스 일원 및 인근 지역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는 황룡제를 대학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문화 한마당으로 확대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퍼레이드 중 각 학과별 특성을 살린 퍼포먼스를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첫날인 21일에는 대학 동아리 공연, 중국유학생 공연, 직장인 밴드 초청공연 등으로 이루어졌고, 22일에는 우쿠렐레 공연, 전통무용, 패션쇼, 가요제 등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동아리공연 및 퓨전 난타 공연, 가요제, 초청밴드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초청가수로 4인조 걸그룹인 미미무가 초청되어 피날레를 장식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공모

내년 1월 이후 사업 최종 선정 되면 재원의 90% 국비 지원받아
정시간·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자유롭게 출퇴근 가능성 커

익산시는 남산면과 삼기면에 걸쳐 위치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의 통근버스 입차지원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국내복귀 기업을 포함해 28개 기업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생활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차여건에 따라 그간 기업체에서는 자체 차량 운행 등으로 이를 타개해 왔으나 기업비용 부담 증가와 인적적 인력고용의 어려움 등을 안고 있었다.

시는 기업운영의 불편사항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시내버스 노선(56-1번 버스 2회/일)을 투입해 운영해 왔지만 버스노선 투입으로는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는 국내복귀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의 일환인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통근버스 입차지원사업'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준비 작업으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선정 고시 추진을 위해 통근용 산업단지 전세버스 운행허용 수요조사를 끝내고, 이해관계자간 버스 및 택시조합, 각 기업체로부터 고시 추진에 동의하는 협의문을 받아 전라북도에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일자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고시됐다.

시는 이후 올해 12월로 예상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공

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이후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면 재원의 9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전세버스가 운행되면, 정시간 및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나머지 준비 작업을 차분히 진행해 최종적으로 본 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쓰겠다.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기업의 고용안정과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업 활력 기업도시라는 시장창출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도내 종교적 문화유산을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탐방

익산시, '이웃종교 돌아보기' 행사 개최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4대 종단의 성지가 모여 있는 익산에서 '이웃종교 돌아보기' 행사가 열린다.

'이웃종교 돌아보기'는 전라북도 내 종교적 문화유산을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탐방하는 것으로 22일~23일에는 익산시 내의 종교적 문화유산을 찾아 4대 종교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며 타 종교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소통한다.

익산은 천주교를 대표하는 사적 제 318호로 지정된 나비위 성지, 남녀유별의 유교적 관습이 남아있는 두동교회, 1400년 찬란한 백제문화가 살아 숨 쉬는 미륵사에서 원불교 총부까지 4대 종교를 아우르며 대표하는 성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22일에는 완주 천호성지를 시작으로 현대시조의 흥취를 이룩한 시조 시인으로 문학계에 잘 알려진 가람 이병기선생의 생가, 여산향교, 여산교당, 여산정터, 여산동원, 여산숲길 등을 끝으로 첫날 일정이 마무리 된다.

이어서 23일에는 국내에 보기 드문 거자형으로 지어진 두동교회, 1884년 제작하여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을 보유한 황등교회, 100년의 짧은 역사에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4대 종단으로 인정받는 원불교의 성지인 원불교중앙총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미륵사지, 무형문화,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가 돼 1845년 익산에 첫 발을 내딛 나비위 성당을 버스순례 하면서 4대 종교

간의 만남을 통해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4대 종교인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가 각 종교의 가치를 공유하며 종교간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종교인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익산에서 한국의 4대 종교가 걸어온 흔적들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국내 4대 종단은 '내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를 주제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주시 종남문 일대와 익산·김제·완주·진안에서 2016세계종교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제1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부스운영 선정 업체 및 단체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스 운영 설명회와 함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익산농기센터, 천만송이 국화축제 대비 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제1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부스운영 선정 업체 및 단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스 운영 설명회와 함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4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83개 업체 및 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축제의 준비상황, 주제관별 운영규약과 함께 관람객들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백제왕도 익산을 알리고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밝고 친절할 익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교육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화축제 부스는 익산의 대표 농산물인 탐미루 쌀과 고구마, 국화빵, 국화화장품 등 100여종의 지역 우수로 킬푸드 판매관과 국화수분크림, 국화초코파이, 국화보습한반들기, 천연염색 체험관 보석 등 기업홍보관, 읍면동지역 주민자치회, 부녀회인들이 참여하는 먹거리관 등 4개관으로 나눠 다양하게 운영된다.

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 정미숙 회장은 "익산 대표 농특산물인 쌀과 고구마, 닭을 활용한 허림닭곰탕, 닭발요리과 수연소면, 고구마튀김, 수수부꾸미 등 익산만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주제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자랑하는 최고의 볼거리는 세계유산도시 백제왕도 익산을 전국에 알리고 백제 무왕대의 왕도로서 찬란한 역사문화를 꽃피웠던 익산의 역사적 위상을 상징화하기 위해 만든 21m LED 미륵사지석탑, 70조각의 국화조형물을 쌓아 만든 백제왕도문이다.

또한 야간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LED조명을 확대 설치하여 축제의 밤을 낮보다 뜨겁고 아름답게 만들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군산시가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다.

군산시보건소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월평균소득 316만원 이하 가구는 제외수정 시술회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며,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또한 월평균소득 583만원(2인 기준) 이하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3회로 회당 190만원까지 난임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월평균소득 583만원(2인 기준) 이상 가구도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3회, 동결배아 3회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자는 9월 1일 이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부터 적용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정부지정 난임시술의 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지참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400-323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영동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

영동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0일 영동1동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새마을부녀회는 배추 값이 치솟아 새 김치를 구경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김치 나눔 봉사에 나서게 됐다.

20일 부녀회원들은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정성을 다해 맛깔난 김치를 담갔다. 사랑으로 버무린 김치는 이날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15세대에게 전달됐다.

관연숙 회장은 "자랑 손길이 그림고, 드실 반찬이 변변치 않은 어려운 신 분들을 생각하면 금(金) 배추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배추를 이용해서라도 김치를 담가드리고 싶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치를 전달받은 이 모 할머니는 "김장때까지 그러저러 지내려고 했는데 잊지 않고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반찬 걱정을 덜 게 됐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학교급식식자재납품 협동조합 창립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군산 만들기'에 힘을 실어줄 군산학교 급식식자재납품 협동조합(회장 이규영)이 창립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학교급식식자재납품 협동조합은 21일 회현면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협동조합은 수산물, 축산물, 야채, 유가공품, 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지역의 3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납품과 관련해 최저인월애 의한 과당경쟁을 막고 대기업과 다른 지역 납품업체 등에 의

한 시장 혼란 등을 막는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산학교급식식자재납품 협동조합 이규영 회장은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창립한 군산학교급식식자재 납품 협동조합은 앞으로 군산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에서 지킨다는 사명감과 마음가짐으로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군산 만들기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점검 실시

군산시보건소가 전면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내일부터 29일까지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보건소 직원 및 금연지도원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아 5개반을 편성해 전면금연구역 8300여개 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주간에는 음식점,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등을 위주로 야간에는 음식

점, 호프집, PC방 등 밀집지역, 금연 지정고시지역, 민원대접업소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인 전면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주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범죄 취약지 등 일제수색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20일 범죄 취약지 공·폐가 등에 대한 방법진단 및 일제수색을 통하여 성범죄 등 취약지역에 앞장서고 주민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일제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빈집이긴 하나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 건물은 관리대장에서 삭제하고, 청소년 상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개소, 출입문 미시정 등으로 범죄수용에 가능한 취약개소

사체유기 등이 용이한 물탱크 사각지대 등 범죄 취약 개소를 집중 수색하여 취약지역 개선·보안을 위한 정밀 방법진단을 실시했다.

중앙지구대장은 "범죄의 취약지인 공·폐가의 일제수색으로 주민들의 치안체감 안전도가 향상되고 대상 건물 11개소로 축소 된 만큼 더 세밀하게 공·폐가 관리에 민전을 기해 범죄예방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